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경운기 · 트랙터

등화장치 설치비 지원

정읍시가 경운기와 트랙터의 야간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주행속도가 느린 농기계가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잘 보이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일반 차량지원 대상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등화장치를 새로 설치하려는 농업인이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1개당 1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1개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며 농업인이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 정읍시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개최

정읍시가 24일~10월 3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정읍시 한 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 독서문화사업인 ‘한 권의 책’을 전국 단위로 넓혀 독자들이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과 감상을 나누도록 한다.

공모 대상 도서는 부문별로 다르다. 대학생과 일반인은 구본권 작가의 ‘로봇시대, 인간의 일’, 중·고등학생은 이금이 작가의 ‘너를 위한 B컷’, 초등학생은 임연옥 작가의 ‘다 숨겨 버릴거야’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자신의 부문에 해당하는 책을 읽은 뒤 생각과 느낌을 담은 독후감을 작성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일정과 원고 분량,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정읍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부안권역 산업용지 확정

부안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대응 · 신규사업 발굴 총력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대응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 20일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사업 35년 역사상 최초로 부안권역 산업용지가 반영됐다”며 “부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계획안이 실제 산업단지 조성 과 기업 유치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각 부서에 새만금개발청 주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새만금과 부안의 발전방향, 산업용지 조성 계획,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

했다. 특히 변경안에 군에 필요한 기능과 개발시기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피고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설명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 군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 부서가 소관 업무와 연계해 새만금 신규사업을 발굴·건의하고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실행과제 구체화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권 군수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생활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행정절차상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할 사항까지 함께 설명회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올해도 3분기 중반에 접어든 만큼 각 부서에서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권 군수는 “아직 발주되지 않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 기관 협의, 예산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은 예산집행 부진과 군민 불편,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서장들이 소관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한여름 밤 야외 링서 킥복싱 열전

제16회 정읍시장기 킥복싱대회 개최... 선수 · 동호인 200여명 모여

정읍시킥복싱협회(회장 이태우)가 주관한 제16회 정읍시장기 킥복싱대회에서 전국 선수와 동호인 등 200여 명이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지난 22일 내장상동 공공플러스센터 야외 특설링에서 열렸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가 후원했다.

경기는 오후 4시 생활체육 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신인전, 오후 8시 이후 준프로급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과 체력을 겨루며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특히 야외에 마련된 특설링에서 힘찬 발차기와 빠른 공방이 이어지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응원과 환호도 쏟아졌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기는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색다



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시 관계자는 “킥복싱은 체중 관리와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정책대상’

창업 · 성장 · 주거 · 정착으로 이어지는 ‘고창형 청년정책’ 성과

고창군이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군은 지역 여건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제품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연계해 청년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의 강점인 농업자원을 청년정책과 접목해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에 관심 있는 외부 청년들이 고창을 탐색하고 체류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 네트워킹과 지역주민·지역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해 관계인구 형성에서 실제 지역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 기반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청년 간담회와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청년 참여형 정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3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에 계기로 기존 청년정책을 한층 체계화하고, ‘청년 유입→창업→성장·판로→주거·금융→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고창형 청년성장·정착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명소발굴’ 프로젝트서 주목

상하농원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인돌유적 · 고창 청보리밭 축제 등... 고창 관광자원 경쟁력 입증



고창군이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에서 지역 관광명소들이 체험·레저, 문화·예술, 미식, 자연·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8개 분야 100개 여행주제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발

굴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상하농원(K-취향 찾기 클래스 여행) △선운사 템플스테이(시간이 머무는 곳, 100년 헤리티지 숙박) △고창읍성(시간을 잊는 읍성 · 산성 여행) △고인돌유적(교과서 여행지 · K-미스테리 여행지)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고창 청보리밭축제(꽃밭 축제) △넓은들 학원농장(스크린 속 그곳,

K-Scene) △고창 평가풍천장어·선운산풍천장어거리(자급, 여기서만 제철 음식)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고창 랍사르갯벌(이국적 풍경이 가득, 국내로 떠나는 세계여행) △선운산도립공원(누구나 갈 수 있는 열린 관광지) 등이 선정되며 고창이 가진 다양한 여행 매력을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세계유산과 산·갯벌 등 자연자원부터 문화·문학, 농촌체험, 미식, 축제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관광자원이 고르게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선운사와 고인돌유적, 상하농원, 넓은들 학원농장 등은 여러 여행주제에 중복 선정되며 하나의 관광자원에서도 여행자의 세대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고창 관광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를 세계유산·생태·농촌체험·미식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6년 읍지연습 성공 개최

부안군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6년 읍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맞춰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부안군은 연습 기간 동안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편

성 및 창설기구 운영,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 재난 및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소화하며 비상대비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실에서 관내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읍·면별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협의회장들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살펴 지역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의장은 “지역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는 주민대표인 협의회장님들의 말씀은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